미래의료 선도할 최첨단 스마트병원 발돋움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다병원체제 진료 모델 고도화와 동시에 의료계 표준 의료서비스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의생명연구센터 융복합연구 선도
심혈관·감염병 전문센터 내년 조성
1조 들여 2030년 1400상 규모
새병원 학동 부지에 신축 건립

안영근 병원장

112년간 호남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전남대학교병원이 새병원 건립과 심혈관 및 감염병 전문진료센터를 조성하며 미래의료를 선도할 최첨단 의료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첨단융복합연구의 산실로 자리 잡을 의생명연구지원센터도 개소하는 등 진료·연구·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 **최첨단 스마트시스템 갖춘 '새병원'** = 전남대병원은 2030년까지 1조원의 예산을 들여 1400병상 규모의 새병원을 현재 전남대병원이 위치한 학동 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다. 새병원은 미래 선진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지능형 스마트병원'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새병원은 최상의 ▲환자맞춤형 통합진료 ▲최첨단 헬스케어 융복합의료연구 ▲세계적 의료리더 양성이 가능한 세 가지 특징을 갖추게 된다.

환자맞춤형 통합진료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의 이념에 발맞춰 최상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간 통합진료가 하나의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헬스케어 융복합의료연구는 전남대병원 112년의 진료 빅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모델을 창출해 새 치료법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창의적인 융복합연구의 산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의료리더 양성은 차세대 선진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도 조성될 예정이다.

◇ **심혈관 및 호흡기·감염병 전문진료센터 건립** = 특히 새병원 건립에 발맞춰 추진한 심혈관 및 호흡기·감염병 전문진료센터 건립공사가 내년부터 진행된다. 전문진료센터는 질환군 및 특정 진료기능을 대상으로 하나의 통합된 공간에서 다목적 진료를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413억원을 들여 센터를 건립한다.

심혈관전문진료센터는 1동 별관에 지상 9층·지하 1층 규모로 신축하고, 호흡기·감염병 전문진료센터는 7동 리모델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심혈관전문진료센터는 심혈관 질환의 통합치료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펼치고, 연구와 임상의 협업을 통해 환자맞춤형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호흡기·감염병 전문진료센터는 그간 공간 운영의 효율성이 낮았던 7동을 증축해 안전하고 통합적인 전문 진료공간으로 재조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전 병동이 폐쇄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안영근 병원장은 "새병원과 전문진료센터 조성사업은 노후된 병원 공간을 재조성해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최상위 전문질환 집중의료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모든 사업이 완공되면 미래 선진의료를 선도하는 '초지능형 스마트병원'으로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첨단융복합연구의 산실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개소** = 전남대병원은 내외부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은 물론 연구 분야 또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첨단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융복합연구시설인 의생명연구지원센터를 지난 2월 개소했다.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인 의생명연구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 2월 착공,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의생명연구지원센터는 중개연구, 임상연구 및 기술상용화 인프라 등이 통합된 전주기 연구개발 공간으로 대형국책사업단, 임상시험센터, 중개의학연구센터, 전임상실험실, 인체유래물은행 등 연구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특히 전남대병원 내 축적된 임상 및 중개 연구역량을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전남대, GIST 등 유관 기관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안영근 병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다병원체제 진료모델을 고도화하고, 세계적 첨단의료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의료계의 표준이 되는 의료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교육을 바탕으로 의료발전을 주도할 글로벌 의료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됨은 물론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전문진료 다병원체제 구축

암 치료 최고 화순전남대병원
관절염 전문 빛고을전남대병원
치과산업 견인 전남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은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어린이병원 등 다병원 체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암 전문의료센터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의 관절전문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다병원 체제로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이끄는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뉴스위크 선정 '암 치료 잘하는 세계 최고 병원'** = 2004년 개원한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정용연)은 뉴스위크로부터 2년 연속 '세계 최고 암병원' 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료센터로 성장했다. 암 부문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국내 13개 병원 중 비수도권으로는 유일하며, 국립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두 곳 뿐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또 비수도권 최초로 방사선을 이용한 최첨단 수술법인 감마나이프 수술 5000례를 돌파한 것은 물론 수도권 대형병원보다 암환자 5년 생존율이 높고 병상당 암 수술건수 전국 1위, 6대암 치료 최고등급 등 '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치과의료산업 이끄는 전남대치과병원** = 전남대치과병원(병원장 조진형)은 다학제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임플란트실 확장개소는 물론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3D 프린팅을 이용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수술 및 치료 등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의료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한 축으로 전남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에서 치과 의료기기 및 의료소재부품의 시험검사는 물론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단계의 각종 기술지원 업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적극적인 공공의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외국인 진료소 운영은 물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의 치아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 **대학병원 최초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빛고을전남대병원** = 2014년 2월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관절전문병원으로 개원한 빛고을전남대병원(병원장 박용욱)은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분야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앞장서 온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학병원 최초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지정 일주일만에 감염병 전담병원 체제를 완비하고, 확진환자 치료와 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특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병상 부족의 비상상황에서 병상연대를 구축해 대구지역 환자 32명을 수용해 정성껏 치료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광주·전남 어린이들의 건강안전망 전남대어린이병원** = 전남대어린이병원(병원장 김찬종)은 지난 2017년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공공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권역 어린이병원으로 개원했다.

신생아부터 소아청소년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급·만성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을 지역의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들이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아 관련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연구에도 최선을 다해 국가 의료 보건 산업의 기술 발전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